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
선종 10주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그리운 김수환 추기경님

『그리운 김수환 추기경』, 가톨릭대학교 김수환추기경연구소에서 김 추기경님을 잘 아는 분들과의 인터뷰를 모아 책을 엮은 것이 어느새 다섯 권이 되었습니다. 선종하신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김 추기경님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그리워집니다. 왜 우리는 그분을 이토록 그리워할까요?

김 추기경님이 평생 불면증에 시달리실 정도로 고민하면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던 ‘민주화’는 그분이 돌아가신 후 점점 더 큰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많은 국민이 촛불을 들어서 쓰러져 가던 민주화를 바로 세웠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김 추기경님이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정직과 성실’을 강조하셨건만, 이를 앞장서 지켜야 할 검사와 대법관들은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그 소중한 가치를 쉽게 내던져 버리곤 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사신 김 추기경님은 모든 이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온 힘을 다 기울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대로 꽃도 피워보지 못한 채 떠나간 세월호의 단원고 학생들과 위험한 비정규직으로 내몰린 젊은이들의 소중한 목숨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세상 속의 교회”를 외치셨던 김 추기경님 시절에 비해 현재 교회는 더욱 커지고 화려해진 건물들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접근을 막는 장애물이 되는 슬픈 현실을 보게 됩니다.

김 추기경님이 얼마나 ‘하느님의 모상’인 개별 인간에 대

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셨는지, 더욱이 대한민국의 ‘교육’, ‘종교 간의 대화’, ‘북한의 복음화’ 등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가르침을 주셨는지는 아직도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를 알리기 위해 김수환추기경연구소는 그분의 삶과 정신을 기록하고 연구하는 한편, <PEACE-LTB>, <생각사이-다>, <시민아카데미> 등 다양한 인성교육을 통해 전해 왔습니다. 2019년 2월 16일 선종 10주년 추모 미사를 전후하여 이제 그동안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기념특강, 영상사진전, 기념심포지엄, 토크콘서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이와 함께 나누려 합니다.

저는 요즘 김 추기경님을 그리워하는 많은 분에게서 시성(詩聖)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그에 앞서서 저는 김 추기경님의 정신이 한 분 한 분의 신자들과 시민들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꿈꾸어 봅니다. 이미 주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시는 김 추기경님은 우리가 단순히 자신을 그리워하기보다 각자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 힘쓰는 것을 보면서 더욱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라고 말씀하신 김수환 추기경님, 많은 이가 당신처럼 주님을 따르는 마음의 기적을 일으켜 주소서. 아멘.

박승찬 엘리야 | 가톨릭대학교 김수환추기경연구소장

제왕베 사용된 서체: ‘김수환 추기경 서체’

김수환 추기경의 육필 원고를 원도 삼아 가톨릭출판사에서 디지털 폰트로 개발했다.
※ 전문가를 통해 검증받은 육필 원고 (김수환 추기경 전집, 가톨릭출판사 2001년 출간)